

[자료집]

(평화재단의 허가 없이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평화재단 창립 16주년 온라인 국제포럼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

퍼 낸 날 | 2020.12.7.

퍼 낸 곳 | 재단법인 평화재단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62 (06640)

연 락 처 | TEL.02-581-0581 / FAX.02-581-4077 / E-MAIL staff@pf.or.kr

홈페이지 | www.p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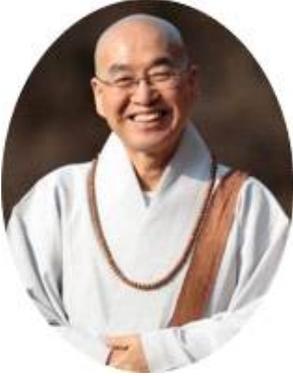
평화재단 창립16주년 온라인 국제포럼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

목차

- **기조발언** |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6
- **<발표 I>**
미국 대선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미래 |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 7
- **<발표 II>**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 평화 |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9
- **<발표 III>**
스가 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11
- **<발표 IV>**
바이든 당선 이후 한미관계의 과제와 전망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14
- **토론 및 질의응답** • 16

참가자 소개



기조발언 법륜스님

주요경력)

1994 (사)에코붓다 설립

1996 (사)JTS 설립

1999 (사)좋은벗들 설립

2004 (재)평화재단 설립

수상경력)

2020년 제37회 니와노평화상 수상

2002년 라몬 막사이사이상 수상



사회 조 한 범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발표 프랭크 자누지

현 맨스필드 재단 대표

전 미국 국제 사면위원회 사무차장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정책국장



발표 및 토론 김 흥 규

현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통일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전 한중 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참가자 소개



발표 및 토론 남 기 정

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전 국민대학교 교수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일본 도쿄대학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발표 및 토론 김 준 형

현 국립외교원 원장
전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한반도평화포럼(재) 기획위원장
미래전략연구원(재) 외교안보센터장
폴브라이트 미국 교환교수



토론 김 병 주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대장

기조발언 |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요지]

법륜스님은 미중관계를 푸는 방식이 트럼프는 거칠게 풀었다면 바이든은 예의를 갖춰 풀 뿐이지 본질적인 대립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정적인 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성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실무자 중심의 외교가 북한 권력구조를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면은 보수 정부가 이미 북미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부담 없이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기에 한국 의견을 더 청취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이 바이든 임기 초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 내용]

훗날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지구 변화의 큰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첫째는 기후변화이다. 이는 생물종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큰 위기가 된다. 둘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다. 근대 100년은 서구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사회모델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기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가 얼마나 공동체 전체에 취약한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절실히 보여줬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디지털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셋째, 미중패권경쟁이 세계와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는 미국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미중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살펴보면, 트럼프가 거칠게 풀었다면 바이든은 예의를 갖출 뿐이지 미중간 대립은 큰 변함이 없다고 예측이 된다.

바이든 집권 후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부정적인 면은 트럼프가 해온 북미관계 진척을 뒤집을 수 있으며, 트럼프의 톱다운 외교방식에 비해 민주당 정부의 실무자 중심 외교가 북한의 권력구조를 볼 때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난 시기에는 민주당 정부가 북미관계를 풀려고 하면 공화당이 견제를 했으나, 이미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북미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푸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한미간 동맹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 정부의 새 한반도 정책이 실행하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그 전에 북한이 이를 참지 못하고 도발행동을 했을 때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일이 없다면 예측과 달리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본다.

발표 I

미국 대선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미래 |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요지]

자누지 소장은 바이든이 트럼프와 달리 동맹 중심적 외교정책을 펼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동맹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며,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중국 접근법은 반중국(anti-China)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질서 보호가 될 것이며, 미국은 그 질서를 강화하는 동맹 및 다자관계에 힘을 쏟고 법치주의, 시장 개방, 정보의 자유 등의 규범을 국내외에서 수호하려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한 3가지 입장으로서, (1)중국이 WTO 규약과 국제안보 규약을 충실히 따를 것 (2)중국의 괴롭힘과 공격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 (3)인권침해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자누지 소장은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오직 비난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진실된 자세와 자비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법률티스의 가르침과 평화재단의 기풍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자세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한미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강화될 것이며, 한국이 대북정책의 중심이 되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 내용]

11월 14일 현재 조 바이든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COVID 팬데믹과 경제 수습이라는 난제로 인해 임기 초에는 외교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외교적으로 무력해지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의미와 외교정책의 변화

우선 대부분 백인, 남성, 트럼프 사업관련 인맥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직 출신의 인재들과 여성, 소수민족 등 다양하고 젊은 층으로 구성된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될 것이다.

툭다운 방식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정은 더 포괄적이며 민주적일 것이며, 결정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집행과정의 질서와 일관성은 커질 것이다.

둘째,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건 반면,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동맹관계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던 반면, 바이든은 동맹관계를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동맹중심적인 외교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부담을 동맹국들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유일한 도전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기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상당히 강경해졌다.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정치계 전반에 걸쳐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기 이후 지난 40년간 큰 진전을 이뤘고 세계 경제안보 및 경제 시스템에 합류했으나, 정치자유화는 멈췄고 자국 내의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억압해왔으며 경제법이나 WTO 규약에 따른 의무와 약속 이행도 미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아태지역에서 미 외교 정책의 중심과제는 마중 관계가 될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경쟁상대 뿐만 아니라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마중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았다면, 바이든은 마중 관계를 적대적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로 여긴다. 중국 대응 방안으로 우선 국내에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기초연구, 과학, 인프라 등에 투자하며,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에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적대적인 제로섬 관계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다음 세가지 요소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규칙대로 할 것. 중국이 WTO 규약과 국제안보 규약을 충실히 따를 것을 기대한다.

둘째, 중국의 괴롭힘(bullying)과 공격적 행위에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으로 대응할 것.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에도 센카쿠 섬에 관한 마일 동맹 조항을 충실히 따르고 중국의 침공위협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겸손함과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이 때 법률클릭의 가르침과 평화재단의 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준다. 인권침해를 못 본 척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진실된 자세나 자비심이 아닌, 오직 비난하는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응하기를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은 반중국(anti-China)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질서 보호가 될 것이며 미국은 그 질서를 강화하는 동맹관계 및 다자관계 구조에 힘을 쏟고 법치주의, 시장 개방, 정보의 자유 등의 규범을 국내외에서 수호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 후보의 연합뉴스 기고문이나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서 보듯이,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의 위협에 기반들 둔 냉전 방식의 동맹에서 탈피하여 공동의 이익 및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의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전도유망하고 지속되는 발전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바이든은 4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은 강압이나 억압보다 포용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 중 하나는 오로지 북핵문제에만 집중해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표 II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 평화 |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요지]

김흥규 교수는 바이든 시대에도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미중간 패권싸움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바이든이 동맹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추구하겠다고 하나 미국 내 트럼프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이 많아 얼마나 국제관계에 안정성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런 미중경쟁 시기 북핵 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간 대항적 성격을 인정하고 안보대책을 세워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는 미중 어느 쪽도 전 세계를 양분할 능력이 없고 세계 국가들은 미중 갈등이 아닌 더 나은 질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나머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쌍순환전략'에서 한국과의 지역적 협력은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는 파동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하고, 한반도나 동아시아로 전략 공간을 한정하는 외교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

미중 전략경쟁 시기 - 새 질서 구축 위한 장기적 패권싸움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트럼프 시대보다는 훨씬 덜 격렬하고, 더 예측 가능한 미중관계를 예상할 수 있지만, 과거의 미국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현재 상황은 혼돈에 빠진 국제질서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서 장기적인 천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의 인식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고, 자신의 체제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기보다는 자기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지 신냉전도 아니고 미중패권경쟁 구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계 강대국들은 트럼프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합집산하면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체스 식 봉쇄전략은 시진핑의 바둑판 식 포석 전략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을 지양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보다 규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기대치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만만치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미국 내부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실제로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북 해법은 '대항적 공존 전략'

미중전략 경쟁 시기에 북한의 핵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대담하게 북한에 포용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고 북한에서도 1월 당 대회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비핵화된 한반도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한 정책들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는 상존하는 남북한의 대항성을 인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새 천하질서를 견인할 제안자/참여자의 길,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

냉전시대와 달리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그들의 정치체제, 이념,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양분할 능력은 없다. 오히려 마중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시진핑 시대의 냉전적 갈등 상황을 우려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마중 사이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 모두와 플러스를 지향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한 안보전략자산이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존중되어야 한다. 미중 냉전갈등을 우려하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연대해서 새로운 천하질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5가지 외교안보 도전

미중전략경쟁이 지속되면서 한국 외교안보는 5가지 도전을 맞고 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필요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과 대비책의 부재가 우려된다. 인식의 미흡이나 남남갈등의 심화로 인해 주어진 전략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비용은 커진다. 친미냐, 친중이냐의 이분법적 사고는 자멸의 길이다.

둘째, 현재 북한은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생존위주 전략으로 전환했다. 자력갱생,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비대칭 군사전략에서의 우위 도모,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에 입각한 안보전략을 짜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죄인의 딜레마 게임' 이론은 한쪽이 배반하면 다른 한쪽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며, 한쪽이 선의만 갖고 대하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본다.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나 국제적 고립, 경제위기 등을 어느 정도 수습한 후 북한이 훨씬 더 대담한 평화 제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자위적인 안보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위협할 수 있고 남남갈등의 심화 가능성, 피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다.

넷째,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의 성공을 생각하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최강 전력을 불량국가의 자비에 생존을 맡기는 위험 아래 놓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군사경쟁에서 전반적인 군사역량은 미국이 우세하나 동아시아태평양에서는 유사시 미국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므로, 한국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상쇄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중관계에는 사드문제 이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자누지는 그런 식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 군부의 입장에서는 미중전략관계상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의 '쌍순환전략' 추진 속 한국의 전략자산 가치와 가능성

중국은 현 상황을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제19차 당대회 5중전회에서 '쌍순환전략'을 내놓았다. 국내대순환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이지만 핵심은 미국의 압박에서 생존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순환적 경제협력구조를 갖추는 것이며, 그 중심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역량 모두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시킬 수 있다면 미중전략시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각국은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제 말한 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혼란스러울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헤징(hedging) 전략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중하게, 그러나 중요한 전략자산을 가진 만큼 기존의 역량만으로도 전 세계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기에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을 잘 준비해나가면 좋겠다.

발표III

스가 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요지]

남기정 교수는 아베의 낮은 지지율로 등장한 스가 내각이 아베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등장했으나, 이는 자민당 내 지지를 고려한 발언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아베 외교안보 정책 중 미일 관계 외 이슈는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다. 미중갈등 속 일본의 국제질서 구상에서도 미일 동맹 일변도에서 약간 탈피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가 내각에서 외교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일본도 바 이든 행정부에서 더 강력한 대중 포위망을 만들면 일본의 선택이 압박될 위험이 있기에, 움직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일이 서로 협력해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관계 복원 - 남북관계 진전 - 북일관계 개선 순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냉전, 정전을 동시 극복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내용]

아베의 전격 사임과 스가의 아베 노선 계승 발언의 속내

아베의 사임은 건강문제라고 하지만 낮은 지지율과 스가 내각으로의 정권 이양을 배경으로 한 준비된 사임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가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아베 시대의 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긍정적 평가이며, 한일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는 긍정과 부정이 절반으로 비슷하고, 한일 무역 분쟁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다. 납치문제, 미군기지 문제, 러일 평화조약 등도 평가가 낮다. 미일관계 이외 이슈는 다 평가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아베 개인의 스캔들이 가장 발목을 잡았다. 국내정치에서 헌법개정과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정책에 비판적이며 변화를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헌법개정은 계승하라는 게 36%이고 아베노믹스도 33.3%에 불과하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은 호황일지 모르지만 개인소득은 줄었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많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평가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왜 스가는 아베 노선 계승을 내걸었나.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이시바는 아베에 비판적이었으나, 스가는 아베 노선의 계승 의지를 명확히 했고,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규명이 다 되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태도였음에도 자민당 안에서 지지가 몰린 것이다. 아베의 사임 타이밍을 보면 코로나 긴급상태로 정치공백을 길게 둘 수 없는 상황을 구실로, 아베에 비판적인 일반 당원의 의견보다는, 아베 노선의 계승을 원하는 국회의원 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전격 사임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대회 형식이 아닌 양원의회 총회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전격 사임을 했고 그 결과 스가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수상이 되었다.

스가 내각의 대외정책

스가 내각의 대외정책을 보면 당장은 아베 노선의 계승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트럼프와의 전화 회담에서 이른바 아베노선의 계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를 확인하고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한일관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최근 한일관계에서 누락된 말을 다시 꼬집어냈고 스가도 나름 화답을 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건전한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보였다.

중일관계를 보면 스가시진핑 전화회담에서 중일관계의 안정적 관계 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일본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조인과 한중일 FTA 조기교섭 타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방일은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그쳤다. 폼페이오 방일 직전 중국 측은 일본이 주도하는 QUAD에 대해 견제하는 발언을 했고, 일본은 중일관계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일인호 4국 회의는 열렸으나 중국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공동선언문 작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도도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스가의 첫 외유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미국은 대선 중이었고 중국이나 한국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첫 선택으로는 무난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했다만 중국을 지칭해서 비난하지는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아베노선을 지속하면서도 변화가능성을 보였다. 사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먼저 방문했다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일본이 대북외교의 우회로로 선택 가능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신 국제질서 구상과 미 대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미 대선 이후 바이든과의 회담에서는 바이든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문제를 언급하여 일본을 안심시켰고, 스가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일 연계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를 '전략'이나 '구상'이라는 하지 않고,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수준에서 그쳤다. 중국에 배려한 표현이다.

코로나 국제정치와 그 아에서 변화하는 미중관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이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현실주의 국제질서 구상안에서 약간의 분화가 보인다. 주류는 여전히 미일동맹에 올인하고 있으나, 미일동맹 일본도에서 좀 탈피하지는 움직임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로부터 스가 내각에서는 미일동맹 일본도의 이념 외교에서 탈피해서 현실주의 외교로의 변화가능성을 볼 수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본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태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만,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림받거나 말려드는 상반된 두 방향의 우려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가 될 경우, 미중 G2협력이 부활할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혼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가 된다면,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강력한 대중 포위망을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일본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일 양국이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지렛대(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가 내각의 실용주의적 성격과 한일관계의 변화 조짐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스가 내각에서는 현실주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 가능성이 있고, 배상문제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한국하기 나쁜 한일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대선 이후에 한일관계가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11월 4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3월 한국이 제안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마침 국장급 대화 등이 열리거나 전망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일 사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미타 고지 대사도 한일관계에 언급하면서, '한국이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이도 약간의 뉘앙스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의원 등의 방일도 있었고, 그들은 스가 총리와 면담도 했다. 그 자리에서 스가는 한국 측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종래, 일본 정부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 측이 '시정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 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던 것에서 보면 변화가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명확한 한국의 언질 없이는 일본 측의 부담이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현금화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확인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국민도 현실적인 해법을 원하고 있음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북일관계에서도 스가 내각은 납치문제에 대해 상당히 강경했던 과거 정부에 비해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등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단계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시기에 실종된 외교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예측 가능한 공간을 한국도 일본도 넓혀가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일간에 투트랙 외교가 복원된다면, 한일관계 복원-남북관계 진전-북일관계 개선 순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냉전, 정전을 동시 극복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Ⅳ

바이든 당선 이후 한미관계의 과제와 전망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요지]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이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능력이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이 허락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이 한미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명시했으나 한미동맹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가치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에 대한 압박이 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현재 북핵이 완성되어 방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란 핵협상을 진행한 블링컨이 바이든 내각에 들어갔으며, 2000년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일치했을 때 6.15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한국이 나서서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 내용]

바이든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Play by the rule)' 전략

트럼프가 국가간 각자도생, 민족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이자 액셀러레이터였다면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스스로도 승리 선언에서 본인을 변곡점이며, 과도적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단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 동맹 회복의 비전을 되살리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걸 실현할 능력이 있으며 국내 상황이 허락할 것인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다행이나 유턴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Play by the rule)' - 국제기구로 돌아가고, 국제협력질서를 회복하여 그 가치와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반칙행위를 통해 쫓아온 중국을 정상화하면 미국의 패권은 유지된다는 생각이다. 중국에는 험난한 시기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도 새로운 기회의 국면이자 숨고르기의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 한미관계의 두 가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보면 '한미동맹은 바이든, 북미관계는 트럼프'라고 양분해서 말하지만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바이든은 한미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명시했고, 트럼프 외교가 '보호비 갈취'라는 언급을 했는데, 2017년 안보위기 상황에서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격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담금 문제는 실무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미국측에서도 한국의 최대치로 인정하기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다만 부정적 측면을 보면, 자누지가 '동맹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에 대한 반사 시각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한미동맹이 탄탄대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들 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트럼프가 단기 이익을 위해 타협도 하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면, 오히려 가치동맹을 중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한미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전략적 유연성이나 미사일방어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바이든 캠프 구성원들이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친일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하면 반갑지만 혹시라도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이 쉽지 않다.

그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민주당의 승리 요인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샌더스 등 민주당 내부 진보인사들의 도움이 컸는데, 해외주둔 미군 감축, 군사비를 복지비로 돌리자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수용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 미군감축 문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 -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북미관계에서 부정적 측면을 먼저 본다면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이다.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지만 상원에서 주로 외교위원회를 맡았던 외교 전문가이고, 오바마 정부 8년에서 가장 약했던 외교를 담당했기에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륜스님께서 제기한 것처럼 바텀업(bottom-up)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론이다. 북한을 믿지 않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회담이 무산되었던 전력이 있다.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는 것. 인선교체 등 시간낭비 또한 부정적 요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벤트성이었고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 위에서 전면 비토(veto)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게 되고 오바마 첫 1년처럼 나빠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는 동의하나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캠프 인사를 만나보면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에 대해 잘못된 비판이라며 부정한다. 북한이 안 나왔고 한국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워낙 강경책이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보인다.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와는 달리 북핵이 완성되어 고도화,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방치할 여유가 없다. 둘째, 바이든의 비서와 보좌관이었던 블링컨과 설리반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내정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을 북한을 악마화하는 강경파로 분류했으나 사실과 다르며,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기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민주당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또 블링컨은 '이란 핵협상'을 가져온 사람인데, 이는 하노이에 가져간 것과 매우 유사한 정책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방향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이며 '한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비현실적이다. 중간단계나 2~3단계 정도로 현실적 단계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부의 정치적 공격에는 취약한 정책이다. 현실론이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일치했던 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 시절 딱 2년이다. 그 당시 2000년 6.15 선언으로 이어진 외교 성공사례가 있으므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대북강경파 그룹인데 지역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트럼프 밑에 있다가 트럼프의 지나친 예측불가능성에 실망하고 옮겨온 사람도 꽤 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람도 있다. 북미관계가 초장에 깨질 경우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중간 그룹은 바이든, 설리반(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블링컨(국무장관 내정자) 등은 비핵화현실론자, 대북협상파, 기능주의자이고 이들은 북한과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다. 즉, 핵동결 같은 중간 단계의 협상에도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이 과거와 달리 고도화 및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핵화하기는 힘들다는 점에 장기플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보다는 약하지만 의회에서 지난 2019년 2월 샌더스 의원을 중심으로 종전결의안을 제출한 51명의 진보 의원들이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들이 힘을 얻게 되면 의회에서 미군 감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 또는 한국이 나서서 바이든 행정부에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 회담은 추상적이지만 포괄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자 :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요지]

토론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제기구와 동맹, 가치를 중시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겠지만 이것이 트럼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일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더라도 재해,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 선에서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갈등을 피할 것을 제안했다. 남기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측했다. 이때 한미일이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동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일, 남북, 북일 순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이 전 세계의 부패, 권위주의, 인권침해와 싸우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정상회담(global summit for democracy)’을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과거에 지나친 도덕주의로 흘러 이라크 전쟁과 같이 해외 정권을 바꾸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것이 대중봉쇄나 세계 권위주의 국가에 적용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입지가 작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홍규 교수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초청되더라도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그것을 대외정책의 규범으로 삼아 중국 등의 국가를 적으로 돌리면 외교 공간의 폭이 좁아지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모두 제한적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질 거라는데 동의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중이 군사, 안보, 경제, 가치에서는 경쟁하지만 기후변화, 보건 등에서는 제한된 협조를 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홍규 교수는 21세기 고도로 세계화된 질서 안에서 미중이 완전히 갈라서는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며, 트럼프 대 중국 공세 하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80%가 투자를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협력과 교류가 오가는 가운데 아주 전략적인 부분에서 경쟁과 탈공조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직접 싸우면 열세라는 사실을 알기에 국내 14억 시장과 주변 우호적 국가들을 포함한 20억 시장을 형성하여 자체적으로 생존하겠다는 ‘쌍순환전략’을 세웠는데, 이 때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 미래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주 의원은 한반도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린차핀(핵심축)이기에, 미국이 주한미군의 해공군 증강을 추구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김준형 교수는 미국 내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고, 김홍규 교수는 미국 내에서 샌더스 등 진보세력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주둔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재조정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내용]

김병주 바이든 행정부도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할 것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더라도 70-80% 정도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고, 20-30%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지만, 20-30%가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 미중관계의 특징은 '경쟁'과 '제한된 협조'다. 군사, 안보, 경제, 가치에서는 경쟁하지만 기후변화, 보건 등에서는 제한된 협조를 할 것이다.

남북문제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많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 2008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10년 후인 2018년도쯤으로 봐서 여유가 있었다. 지금은 상당히 핵위협이 가속화되어서 이런 형식의 핵협상을 택하지 않겠다. 바이든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블링컨(Tony Blinken)이 이런 핵협상을 주도했다. 대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미동맹은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반면 미국이 다자주의로 가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려 하므로 다자주의를 우리에게도 요구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5배 이상 열도당토하지 않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는 할 것이다. 미국 모두가 원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와 동북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현재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국회에서 한미관계를 잘 풀어야 북한을 평화체제로 이끌 수 있으므로 민주당 132명, 야당 5명을 포함해 137명이 한미지결의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정부를 설득시키는 여러 작업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끌고 가야한다.

김준형 바이든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play by the rule)'란?

기본적으로 백 투 노멀(back to normal)이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이제는 정상으로 가자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면서도 규칙을 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해가자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양자적으로 관세전쟁을 했고 화웨이 제재 조치를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지적재산권 침해, 해킹 등의 문제를 국제기구에 내놓고 확실하게 감시,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국은 숨 고르기 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패권이 달려 있는 긴급한 사안이므로 화웨이 압박은 바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방향은 정해져 있으나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이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미국의 대외적 힘이 축소된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다. 이미 트럼프가 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협약을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기에, 바이든이 다시 이를 복원한다 해도 추후 정권이 다시 교체되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펀치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이 때리면 중국은 그만큼 되받는 게임을 하면서 중국은 견디기만 하면 이긴다는 전략이다. 시진핑이 중국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중국은 미국에 양자적으로 얻어맞기보다는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이든이 보건, 기후, 북한문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숨 고르기 할 수 있는 완충지대라고 생각한다.

2018년 여름 이후, 미중전략경쟁이 구조적이고 장기간 끝 수밖에 없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있는 후에 중국은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본다.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제19차 당대회 5중전에서 쌍순환전략으로 나왔다. 21세기 고도화된 세계화 속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 하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80%는 철수할 계획이 없고, 애플과 테슬라는 오히려 투자를 강화했다. 또한 미국의 많은 금융집단이 중국에 투자했다. 바이든 시대에는 협력과 교류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주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탈공조화와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군사력이 열세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굳이 미국과 싸우면서 세계에 나가려는 생각이 없다. 향후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20% 미만일 것이다. 중국은 자기 시장이 14억이고 동남아와 주변 국가들 포함하면 20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 안에서 완성된 시장을 갖출 수 있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살자는 생각에서 쌍순환이 나왔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메모리 반도체다. 이것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대만인데 대만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공급을 중단했다. 남은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인데 그걸 공급받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중국 외교의 모든 초점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놓일 것이다. 여기에 일본까지만 묶어내면 중국이 필요한 웬만한 고급기술은 확보할 수 있으며, 5~10년이면 중국에 필요한 기술 자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RVC(지역 내 무역체계)를 잘 엮기만 한다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중국 내부가 여전히 부패나 빈부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버드 등 세계 유수 기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민의조사를 해보면 시진핑에 대한 중국 내부지지도는 90% 이상이 나온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미 전략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RVC 구축을 통해 자체 완결성을 갖출 수도 있으나, 5G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첨단기술의 특징은 1년만 격차가 벌어져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화웨이 등 주요 몇 개를 제재조치해서 중국의 기술발전을 연기시켜 따라올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또한 첨단기술은 중국 자체적으로 RVC를 통해 완결성을 이룰지라도, 오히려 중국전체 식량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이 오히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펴는 것처럼만 보이기 쉬운데, 사실 아베시로부터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방일 일정 등이 코로나 때문에 깨졌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라도 중국, 한국, 북한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일본 내각의 막후 실력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카이가 친중파이자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 친대만파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스가 내각의 방위상인데, 그가 반중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홍콩문제에서도 강경한 목소리

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중국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 방역을 성공시키려면 동아시아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고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2030년에 평양 아시안 게임을 제안함으로써 모멘텀을 유지하는 노력도 하면 좋겠다.

김병주 바이든 행정부, 전작권전환 더 빨라지지 않을 것

김흥규 교수님의 발제의견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관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았는데,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전작권은 트럼프나 바이든이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바이든이라고 해서 더 빨리 전작권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지금 견지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이 정리됐다. 첫째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향상시켜서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갖출 것.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출 것. 셋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진전시킬 것. 작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평가를 했었고 내년에 중간 평가가 기획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절차를 강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들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미국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한미가 공동지휘하는 체계이다.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공수로 미군과 한국군을 편승해서 전사가 되면 연합사령부에서 지휘한다. 연합사령관은 미국에서, 부사령관은 한국에서 맡는다. 사령관이 60%, 부사령관이 40% 정도 공동지휘하는 구조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어서 그때도 공동 지휘하는데 반대로 한국이 60% 주도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제대로 한국군을 지원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해결했다. 예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 연합군을 해체하고 연락반을 설치하는 구조였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연합사를 유지하고 사령관, 부사령관을 서로 변경하는 정도로 정리했다.

94년도에 평시작전권은 이미 한국군에 이양되어서 한국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전시에 공동지휘인데 연합 공동지휘가 한국군 중 일부를 지휘하고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령부 등은 한국군이 지휘한다. 전환이 되더라도 안보의 공백이 없어야 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평가해가면서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 재대로 나갈 것이다.

전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큰 변수가 있다.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빨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중국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 중국의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면 늦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떻게 되든 북한을 비핵화 시키면서 평화체제로 가면 전작권 전환도 빨리 될 수 있다.

김준형 종전선언 결의안의 의미와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다. 지금 한반도 문제가 개성연락사무소, 공무원 피격 등의 문제로 교착상태이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교체기에 많은 시간이 흐를 텐데, 종전선언 결의안을 통해 남북관계가 모멘텀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다.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에서 이란 협상 모델로 접근할 시 중국에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넘김으로써 한반도 프로세스를 중국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바이든이 생각

하는 것과는 다르다. 바이든은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도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주길 바랬다. 그 때 문제점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미국에 비해 장기적이고,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오판이었다. 최근에는 북중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 더 힘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면 좋게 작동할 것이다.

김흥규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에 따라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대책 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장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4년 뒤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의 여론을 보면 젊은 층으로 갈수록 버니 샌더스의 주장과 같이 굳이 왜 예산을 써서 해외에서 미군을 운용해야하느냐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다. 트럼프의 대한민국 압박은 그들의 그런 열망과 미국 역량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군이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안이한 정세판단이며,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신뢰의 결핍과 안보 불안이라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신뢰의 결핍은 협정, 조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국제정치의 악마성을 잘 체득하고 있고, 남북한 간 전쟁까지 치른 상황에서 단순한 몇 차례 교류로 신뢰가 쌓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안보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비핵화지만, 북한은 비핵화하면 안보 불안이 높아지기에 계속 핵을 고집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답을 낼 수 없다면 주도적 대북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군사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율성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해 차기정부는 답을 내줘야 한다.

김병주 **한반도는 미국 전략의 린치핀,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

한반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린치핀(핵심축)이다. 그걸 이해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말지가 판단이 쉽다. 핵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 핵심이며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다. 바이든 정부로 가면 갈수록 한반도에서든 일본에서든 미군 전략 증강을 원할 것이다. 특히 육군 증강은 어렵고 해공군의 증강을 더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의 참여를 더 요구할 텐데, 그러면 중국과 갈등이 생기니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집중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간접적인 선에서 참여해야 한다. 초국가적 위협인 재해, 재난, 테러 등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친남방 정책과 접점이 있기에 국가적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협력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같이 싸운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제 3국이 침략을 했을 때 같이 대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체계를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기정 **강제동원 배상 문제, 우리가 형식을 취하고 일본이 내용을 취한다면 해결 가능**

바이든의 동아시아 정책이 동맹중시 다자주의로 간다면 당연히 한미일간의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냉전시대처럼 안보동맹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빼고 한일 간에 좀 더 직접적인 신뢰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가는 아베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되더라도 아베 관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가지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 안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일'의 자장에 말리지 않기 위해, 한미미일동맹과 별도로 한일의 독자적 영역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대일 외교는 문재인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한일관계를 이제야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겼다. 바이든의 구호 중 하나가 리턴 투 노멀(return to normal)인데, 스가가 일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으로의 복귀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교는 외무성이 그림을 그려서 수상 관저에 와서 수상을 설득했는데, 아베시기에는 수상관저의 관저관료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외무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외무성이 다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때문에 한일 간의 대화와 왕래가 생기고 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한일 간 왕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한국의 변화로 이해하지만 저는 먼저 일본의 변화가 있었고, 한국이 원래 하려고 하던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도 우리는 일본의 문을 두드려 왔는데 아베는 듣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일본 국민들도 일방주의적인 외교에 지쳐있고 한일 관계에서 너무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아베시기의 개인적 스캔들 문제가 굉장히 원색적 비난을 받고 있어서 아베와 선을 긋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풀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형식을 취하고 일본이 내용을 취한다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경제적 배상이 아니라도 일본 기업의 사고와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나온 EAI-연론NPO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여론도 피해 배상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 58%에서 올해 36%로 줄었다. 대신 기금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국이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것은 피해자 요구를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김준형 바이든 외교정책, 도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글로벌 서밋 포 디모크라시(global summit for democracy)라는 개념은 바이든 공약집에 제시됐는데, 미국이 전 세계의 부패, 권위주의, 인권침해와 싸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주의, 이상주의로 흘러 카터 대통령 때 실패한 사례가 있다. 과연 미국이 도덕성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부시 대통령이 이것을 사용해서 외국의 정권을 바꾸는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것이 대중봉쇄나 세계 스트롱맨들의 국가에 적용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입지가 작아질 수 있다. 가치기반으로 가는 것이 근본주의적, 도덕주의적으로 흘러서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까지 바꾼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김흥규 한국, 바이든의 가치이념 중심 외교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돼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고, 이것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과 반성에서 글로벌 서밋 포 디모크라시(global summit for democracy) 얘기가 강조된 것 같다. 바이든이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 미국외교협회 잡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도 이 부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국가가 이상주의, 도덕주의, 정의를 내세우면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낳았다. 선한 뜻과

달리 결과가 참담할 때가 많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과연 이런 가치나 이념을 외교정책 행동 준칙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 중국을 포함 세계 절반을 적으로 돌리거나 소외시킬 여력이 있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적으로 열심히 배양해야 하나, 그것을 대외정책의 준칙으로 사용하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일이다. 글로벌 서밋에 미국이 우리를 초청하면 기쁘게 갈 수 있으나, 우리가 다른 국가를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김병주

한미동맹, 군사동맹에서 경제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동맹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더 대응할 수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하고 서해를 배회하는 게 많아지고 러시아도 동해 지역 군사 활동을 늘리고 일본도 헌법개정을 통해 군사대국화로 가고 동해안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군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래에 동북아안정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앞으로 분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 수준에서 미국이 최강이므로 기술 공유도 동맹으로 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주의의 가치 중심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번영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동북아에서의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수레의 두 바퀴가 모두 필요한데, 한쪽은 한미 동맹으로 잘 돌아가야 하고 다른 한쪽은 주변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남기정

바이든의 가치 외교, 대북 인도주의 지원으로

가치외교 관련해서 너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한다. 자누지 발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북정책이 너무 대북제재에만 기대왔는데 인간적 차원(human dimension)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치외교가 북한 민주화에 대한 압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미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본다. 오늘 공통된 내용을 돌아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이란 방식을 취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북미관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북일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일, 남북, 북일 관계를 새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본다.

김병주

현재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시점

역사의 변화가 2가지 이론이 있는데, 지속적 발전과 계단형 발전 이론이 있다. 저는 계단형 발전이 더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현 지점이 계단을 오르는 지점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갈 것이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현재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면서도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가 그런 전략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서 감사하다.

사실은 외교 안보 사안은 대선에 크게 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해왔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는 대단히 커다란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기조가 되어 상당히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전통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공간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단 한번의 착오로 삼성 같은 기업도 망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 제가 이미 제기한 5가지의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깊이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식인이나 기자들도 정치인들에게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 드린다.

중국을 끌어낸 것은 미국이 소련의 견제를 위해서였다. 미국이 착각했던 것은 중국이 세질 줄 몰랐다. 또한 중국이 민주화 될 줄 알았는데 두 개 다 빗나갔다. 미국이 만난 가장 강한 상대가 중국이다. 미국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의 GVC가 만들어지니까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다시 중국이 중국 중심의 아시아 벨류체인을 만들려고 시도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밥 빌어먹던 거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밥 빌어먹던 강통을 금으로 바꾸는 거라고 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날지 못하는 새가 계속 날려고 했으면 날았을 텐데 포기했기 때문에 안주한 것이라 한다. 한반도 역사상 우리 국력이 가장 강성한 때가 지금 아닌가.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고래는 못 되도 돌고래는 되는 상황이다. 미국도 우리를 원하고 중국도 우리를 원하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금 교착국면이지만 잘해왔다고 본다. 내년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외교를 잘해서 미래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소중한 집단지성의 시간이었다. 30년간 전문가로 살면서 평화재단이라는 등대가 없었다면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립 16주년 감사드리고 외교안보통일의 집단지성의 등대가 되어주시면 하는 말씀 드린다. 온라인 참여 청중들, 스텝, 법륜스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